

유럽지역에서의 영업발명 관련 발명의 특허가능성 검토



1. 유럽 특허청과 영국 특허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서의 영업방법과 이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검토함

가. 영업방법 특허관련 유럽특허청(EPO)의 심결례(T0931/95)

1) 출원발명의 요지

- 주기적(periodic)으로 연금지급을 받는 연금수혜대상 종업원 위해 1개 이상의 고용주의 계정을 관리하여 연금 급부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방법과 동 연금 급부 시스템을 통제하는 장치

2) 출원인의 주장

- 출원발명의 청구내용은 실체가 있는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며, EPO가 요구하는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은 미국 등 비 유럽국가에서는 이미 시대에 뒤진(outdated) 것이라고 주장

3) EPO 심판부의 결정 요지

- 영업방법의 특허 가능성 문제
 - EPC 제 52조 (1)항이 의미하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기술적 특성(technical character)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암시적으로 요구(implicit requirement)되고 있으며, 최근 심결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함(EPO 심결례 T1173/97과 T935/97)

- 단지 경제적인 개념을 포함한 방법이나 영업을 하는 practice는 제 52조 (1)항이 의미하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순수하게 비 기술적(non-technical)목적이거나, 순수하게 비 기술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에 반드시 기술적 특성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함.

- 따라서, 상기 출원발명 중 첫 번째 청구항의 연금 급부 통제 방법은 순수하게 행정적이고 보험통계 또는 재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기술적 특성을 갖지 못했으며,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기술적 수단도 기술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함

- 영업발명을 지원하는 장치의 특허성 문제
 - 실체(physical entity)나 특정한 생산물(product)을 구성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데 알맞은 장치(apparatus)는 제 52조 (1)항이 의미하는 발명에는 포함되나, 본건과 관련한 출원발명의 장치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결정

나. 영국 특허청의 영업방법 관련 발명 사례 (출원번호 UK96040035)

1) 출원발명의 요지

- 예약요건(reservation requirement)을 접수하여, 자동으로 예약접수 여부 또는 순서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최초 예약 요

건과 2차 예약 요건의 중요도를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어떤 예약을 수용할 것인지와, 그 경우 수용된 예약 시간과 날짜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시스템과 그 장치

2) 출원인의 주장

- 본 발명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기술적인 것이며, 동 시스템이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복수의 입력자료를 받아 처리하고, 예약자료 입력시 각종 다른 수단(전화, 팩스, 키보드 등)을 사용하는 등 발명의 기술적 특성이 증명(demonstrate)되고 있다고 주장

3) 영국 특허청의 결정요지

- 상기 출원발명은 과거 수작업에 의한 예약 방법을 자동화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동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technical means)은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
- 상기 기술적 수단의 특허 가능성과 관련, 자동화(automation)가 사용자에게 예약 방법을 더 빨리 정확하고 쉽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컴퓨터화로 인한 흔히 있는 편익(benefit)에 불과한 것이며, 출원발명의 청구항(claim)이나 명세서(description)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 작용(technical operation)을 변경한다거나,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간의 특별한 상호 작용을 일으킴으로서 새로운 기술적 성과(technical result)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함
- 즉, 출원인의 주장대로 출원발명이 기술적 장치이지만 그 기술은 진부한(con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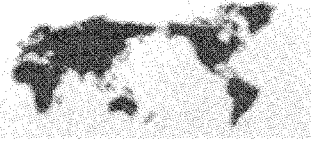
tional) 것이고,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적 효과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특허될 수 없다고 함

- 영국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 제기 가능

2. 분석 및 전망

- 유럽 내에서는 아직 영업방법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as such)는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발명은 특허등록이 거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유럽 내에서의 영업방법 특허출원이 등록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영업방법을 실행하는 장치(apparatus)는 특허 보호대상에서 포함되나, 상기 사례에서의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례 모두 기존 방법의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선 기술적 효과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모두 발명의 진보성의 결여로 인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되고 있음. 따라서 영업방법의 진보성과 그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의 진보성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U에서의 영업방법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에서 현재 관련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문제를 오는 3. 12. 개최될 역내 시장 각료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한 이후 공식적으로 관련 지침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관행에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영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정책



1.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상거래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한 EU내 특허권 인정 여부 논란과 관련, 영국 통산부 Patricia Hewitt 전자상거래담당 국무장관은 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최근 관련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음

- o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할 만한 심대한 변화가 없었고
- o 현재 이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EU 특허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며
- o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기법도 특허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나. 이와 관련 Hewitt 장관은 소프트웨어 등 창의적 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대상이 기술적 발명(technological innovation)에 국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워드프로세서상의 문법점검 소프트웨어와 같은 비기술적 발명품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현재 동 분야에 대한 지침(Directive) 마련을 추진중인

유럽 집행위측에 영국 정부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2. 현재 유럽특허협정(European Patent Convention) 및 영국특허법(the Patent Act 1977)은 Software와 Business Method에 대한 특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약 20,000건의 특허권을 부여한 바 있으며, 상거래기법에 대한 특허도 약 400건 가량이 출원되어 계류중에 있음

3. 이와 관련, 영국 내 특허전문 변호사들은 이러한 영국정부 입장이 미국법원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인정 판례와 유럽 내에서의 사실상 특허권 부여 등 현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인정치 않을 경우 영국기업들이 그들의 발명품을 보호할 수단을 잃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허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EU차원의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

한-중-일, 특허권 통용제도 공동 설립 결정



일본경제신문은 지난 1일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특허담당 부서간에 동일내용의 특허를 3국에

서 동시에 인가한다는 공동 특허권 통용제도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9월 동경에서 개

최 예정인 제1차 특허국장 정기회의에서 상기 제도의 제정에 관해 논의한 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특허심사 표준 통용 등의 업무를 시작할 예

정이라고 보도했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중국 지적재산권보호 대폭 강화

1일부터 새 특허법의 시행을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왕징환(王景川) 국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겨냥해 이 같은 당국의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

왕 국장은 앞으로 중국이 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에 보다 일치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새 특허법은 사정을 모르는 제3자의 행위라도 법규 위반에 해당할 경우 특허

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계산방법도 명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 기관들도 법적 지위를 부여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내에선 가짜 상품이 범람하는 등 특허권과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왕 국장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의 의식이 낮고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다”고 시인하고 있다.

출처 중국경제신문

일본 통신종합연구소-특허개발 가속

통신종합연구소는 개방특허전략을 가속한다. 통신종합연구소는 광기술과 통신 안테나, 측정센서, 암호 등의 각 분야에서 갖고 있는 특허정보를 민간기업에 앞장서서 공개해 상품화하게 함으로써 로열티 수입의 증가를 꾀한다. 독립행정법인으로서 경영체질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진행시키는 것이 연구소의 목표이다.

연구소는 개방특허의 도면을 나열한 ‘개방 특허 리스트’ 책자를 작성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서도 적극적으로 PR해서 팔 방침이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방특허수는 약 70건이다. 통신 안테나 관계의 멀티모드 서비스 무선통신시스템과 평면방사형 발진장치, 광기술관계의 광제어 페이즈도어레이안테나, 광부호 분할 다중통신방식 등이다.

지금까지 방송위성(BS)디지털 방송 안테나, 연안해상 레이더, 카오스 암호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은 공개 완료됐으며, 더욱 공개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BS 안테나기술은 마이크로테크에 판매해서, 도파관형 평면안테나의 채용 등으로 종전 100만 엔 이상했던 안테나 가격이 13만 8천 엔까지 떨어졌다. 캠핑자동차나 트럭용으로 주문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카오스 암호기술은 2기업에 제공해서, 특정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는 의료사무 소프트웨어로서 올 가을에 상품화할 예정이다.

통신종합연구소에서 이 외에도 출원 완료한 특허는 약 150건 있다. 연구소는 통신속도 향상과 단말기의 저가격화 경쟁으로 기업층의 도입 의욕도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모두 다 광기술과 무선기술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일간공업신문

프랑스 환경부 에너지 절약 30계명



프랑스 환경부는 지난 화요일 '세계 환경의 날' 을 맞이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30가지 작은 실천 사항을 담은 팜플렛 7백만 부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배포했다.

▷ 대기

1.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자동차 사용을 자제한다. 운행 처음 1km는 그 이후 운행보다 4배나 많은 오염 물질을 방출한다.
2. 자동차의 연소 장치를 점검한다.
3. 가속장치를 심하게 밟지 않는다. 10%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의 연료비가 더 소요된다.
4. 갑자기 정지하지 않는다. 50%의 연료비가 소모된다.
5. 벽난로에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다. 낡은 가구를 벽난로에서 태우면 독성 페인트가 대기로 방출된다.

▷ 수질

6. 목욕보다는 샤워를 한다. 샤워 때 소모되는 물은 일인당 25에서 100리터인 반면 목욕은

일인당 최소한 1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7. 완전히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은 일년에 35000리터이다.
8. 인이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조류의 대량 번식을 일으킨다.
9. 정원에 물은 저녁 때 준다. 증발율이 적을 때 주는 물로 평소 보다 50%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10. 집에서 교환한 윤활유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소에 갖다 준다. 윤활유 1리터를 강에다 버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종합 경기장 만한 흡수제가 필요하다.

▷ 쓰레기

11. 쓰레기를 분리한다. 플라스틱 한 병으로 7개의 공중전화 카드를 만들 수 있다.
12. 생태학적 쓰레기 비닐 봉투를 사서 사용한다.(NF라고 쓰여져 있다.) 환경 친화적 소모품은 이 밖에도 원두 커피 여과기, 전구 등이 있다.
13. 종이는 앞뒤로 사용한다.
14. 거대한 쓰레기는 반드시 시청에 수거를

요청한다.

15. 사용된 건전지는 수거지에 다시 가져온다.

▷ 소음

16. 텔레비전과 오디오는 벽에서 멀리 둔다.

이웃에게 소음이 될 수 있다.

17. 개가 이유없이 늘 짖는다면 가족의에게 문의한다.

18. 이사할 때 가구 다리에 적당한 이동기구를 달아서 소음을 줄인다.

19. 소음이 적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한다.

20.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소음을 내는 소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에너지

21. 40회전짜리 세탁기는 그렇지 않은 세탁기보다 3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

22. 성애가 긴 냉장고는 30%의 전기를 더 사용한다.

23. 에너지 절약형 전구는 에너지 절약이 4~백일 뿐더러 수명도 6배나 길다.

24.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일년에 4000프랑 이상의 경제적인 절약과 더불어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7%로 감소한다.

25. 보지 않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으면 70%의 전기료가 소모된다.

▷ 자연

26. 피그닉 후에 버린 종이컵을 분해하는데 10년이 걸린다.

27. 10건의 산불 가운데 9건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

28. 제거한 잡초는 가공하여 사료로 사용한다.

29. 아무 꽃이나 꺾지 않는다. 보호종일지 모른다.

30. 자연 보호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출처 <http://brecherchelt/environnement>

2001년 발명상 - 매직북, 지로탐지기



통신, 우주, 건강, 교통수단 분야의 9명이 Discover지의 편집인들에 의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중 어떤 프로젝트는 순수 로켓과학으로 보이고 어떤 것은 단순한 흥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 모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 잡지의 편집장인 Stephen Petranek은 말했다.

예를 들어 매직북(MagicBook)라는 발명품은 의료용뿐만 아니라 하이테크 오락용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Petranek은 말했다. 이 발명

품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 책에 있는 사진에서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컴퓨터에 연결된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면 책 속에 2차원 영상이 3차원 물체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특수안경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가 책 속의 영상과 상호 작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독자가 머리를 움직이거나 책을 옆으로 기울이거나 하면 가상 세계에서처럼 물체의 다른 쪽 면을 볼 수도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이상한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기술은 워싱턴대학에서 개발됐는데 의학연구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환자의 MRI 촬영결과와 결합하면 의사들은 어려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 내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태평양 북서지역 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지뢰탐지 장비도 Discover지에 의해 2001년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이 발명품은 잔디를 깎는 기계와 비슷하게 생겼다. 이 장비에 장착된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는 지뢰에 흔히 사용되는 수소를 감지해 낸다. 이 장비는 플라스틱

으로 제작되어 감지가 어려운 지뢰도 찾아낼 수 있다. 전세계에 매설된 지뢰의 수는 1억1천만 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일 70명 이상이 지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 장비는 이러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01년 발명상 수상자들에게는 5천 달러의 상금이 지급되며 Discover지 7월호에 실리게 된다. 지뢰탐지 장비의 경우 새로운 발견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Christopher Columbus 재단으로부터 1만 달러의 상금을 수상했다.

출처: <http://abcnews.go.com/sections/scitech/Dailynews/discoveramd0106>

국제 '생명카달로그 계획'



지금까지 알려진 지구상의 모든 생물 175만 여 종에 대한 통합 카달로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과학자들은 최근 영국 리딩에서 워크숍을 갖고, 앞으로 10년 내에 이같은 카달로그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다. 영국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자원연구위원회(BBSRC: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의 생물자원분과가 공동으로 이번 워크숍을 주최했다.

모든 동식물을 비롯해 알려진 균류와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될 이 '생명카달로그'(Catalogue of Life)는 세계적인 생물보존 전략의 개발과 다른 대륙으로부터 유입된 유해 종에 대한

이해 등 많은 영역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됐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영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네트워크인 Species2000과 북미의 통합 분류학정보시스템(ITIS: Integrated Taxonomic Information System)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이미 25만 여 종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으며 2003년까지 50만 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Species 2000의 비스비(Frank Bisby) 교수는 이 계획을 인간계놈프로젝트와 비교했다. 그는 "계놈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생명카달로그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최고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CCFDIS News

일본의 특허출원



일본 경제산업성 및 특허청은 지난 달 31일에 일본, 미국, 유럽에서 과거 10년간에 출원된 특허 출원상황 등을 기초로 최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종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특허 전체의 출원건수에서 세계 제일이지만, 인간의 유전정보(사람의 게놈) 해석과 IT로 응용 등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생명공학)의 기간기술에서 미국, 유럽에 비해서 늦은 감이 두드러졌다.

조사는 바이오테크놀로지, 환경, IT 등 21가지 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문헌 약

100만 건에 관해서 출원상황, 출원내용과 상품으로의 응용 유무 등을 분석했다.

바이오테크놀러지의 기간기술에서는 특허대상으로 하는 테마를 너무 넓혀, 특정부분에연구개발의 역점을 압축하고 있는 미국보다 연구의 스피드가 늦다. 그러나, 단백질의 구조해석과 미생물을 응용한 파인 케미컬(고순도 화학제품) 등의 경쟁력은 높아, 특허청은 “이후 일본이 강한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기술혁신을 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한·중·일특허동시취득가능



일본, 중국, 한국의 특허청은 같은 내용의 특허를 3개국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 합의했다. 2002년부터 특허심사의 기준 공통화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으로는 심사결과를 상호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자국에서 인정된 특허가 3개국 전부 보호되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전개를 진행하는 일본 기업도 중국과 한국에 신제품과 신기술을 투입하기 쉽게 됐다. 3개국은 특허청장관의 정기회담을 신설해, 오는 9월 동경에서 열리는 첫 회합에서 제도 만들기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일본기업은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1998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11300건, 한국에서는 14500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그러나 특허제도는 각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정된 특허가 양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거나 인정받아도 해석의 차이로 일본과 같

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 한국에, 특허제도의 공통화를 호소했다. 제1단계로는 출원하기 전에 존재하는 선행기술에 관해서, 출원자의 국가 조사결과를 다른 2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제2단계에서는 출원내용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3개국에서 통일시켜, 각국의 심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최종적으로는 출원자의 국가의 심사결과를 다른 2개국이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향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자국에 출원해서 인정받으면, 자국뿐만 아니라 3개국 동시에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의 공통화로서는 세계 지적소유권기관(WIP)은 1개국에서 특허를 얻으면 가맹국 모든 곳에서 보호되는 ‘세계 특허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발특2001/8